

설교자: Andrew de Vries

9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10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1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지 삼일에 12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14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 그 밤에 시내를 좇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 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 왔으나 16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17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18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나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20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현장방문은 보통 흥미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현장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너져버린 성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별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이 교회방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워 질 것입니다. 재건되고 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 교회. 우리는 재건의 첫 시작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재건시키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파괴된 것들에 대한 현실 직시하게 함으로서 재건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것들에 관한 보고를 작성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재건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파괴가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적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을 재건하려 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영적 파괴들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약점을 실제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파괴들을 볼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도움을 통해 내 자신의 무너진 영적상태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몇몇 교회들에 오셔서 그들의 무너져 내린 영역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분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책망을 통해 교회를 회개토록 하시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라게 하시며 영적으로 재건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교회에 말씀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자원하게 만듦으로 재건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자신 스스로 모든 재건을 도맡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재건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 그들이 얼마나 실패자인지 그리고 그 실패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함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 그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 일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파괴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을 멈추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분의 이름이 영광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죄들을 대항해 싸웁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 그 분

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재건을 위한 동기 부여를 합니다. 오늘 설교본문 18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공급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이런 기억들을 이끄는 힘이며 이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3, 하나님께서는 반대세력을 통해서도 재건하십니다: 재건은 결코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순탄하게만 이뤄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재건에 대해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의 재건과 교회 재건을 추구할 때 반대세력의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대세력에도 불구하고 재건을 성공을 보장하실 것이란 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결말은 죽음뿐이며 이것이 느헤미야가 그의 적들에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현장방문은 우리에게 용기를 줄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예수살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란 음성에 함께 하시겠습니까?